

# 구조 代案 제시의 활성화

Let's Activate, To Make a Alternative Idea on Structural Design

李昌男/센구조 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현상 설계를 하는 곳에 나는 가끔 초청을 받는다. 수북한 담배 재떨이, 마시지만 커피잔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설계실 환경에서 뽑아내는 천연색 설계도가 어찌면 그렇게도 현란한지 이해가 안간다. 그러나 평면도와 단면도 등 구석 구석을 살펴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다. 꼭 필요함직한 기동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워버린다. 앞 뒤가 안맞는데도 그럴듯한 설명문을 써 달란다.

우선 당선해 놓고 보자는 작전이다. 하기사 평생 살을 맞대고 아들, 딸 낳고 살 부부가 될 상대방에게도 집안 흥 허물은 물론 당장 탄로날 본인의 신체적 결함까지도 숨기는 판국에 그 정도는 애교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는 강변도 있을 법 하나, 당선작으로 뽑힌 작품이 낙선작보다 반드시 우수하지는 않다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사위원의 판단에 혼란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잔재주를 부리는 대신 우직하게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표현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때로는 현상설계 심의위원의 자질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안이 분명히 합리적이기는 한데, 심사위원이란 사람이 그 정도까지 이해할 만큼 유능할까? 오히려 평범하게 끌고 가서 감점이나 당하지 않는 것이 차선책일까? 를 고민하다 세월을 보내기도 한다.

10작품 중 1등만 본설계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봐야 할 판이다.

1년 내내 고생해서 통장에 깔린 푼돈이 현상설계 하느라 쏟아 부은 여관값 설렁탕 값으로 또다시 빈털털이가 되니 맥이 풀릴 수밖에...

현상설계 10개 작품중 1개만 당선시킬 게 아니라 두, 서너개 우수작을 본설계까지 시켜서(물론 설계비 다 주고)플라잡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터무니 없는 공상도 해본다.

외국에서는 한 1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한다는데, 달랑 한동 짓기 위한 설계니 아파트처럼 모델하우스 지으랴 할 수도 없고...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다. 완제품인 가전제품 하나를 고르는 것도 써보지 않고는 모르는데, 작가를 미리

선정해서 주문 생산한 작품이 100% 자기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또는 집짓는 동안 이사람 저사람으로부터 흥허물을 듣기 마련이다. 옛부터 길가에 짓는 집 3년 가도 못짓는다는 말이 있다지 않은가? 건축주가 제시한 설계 조건이란 것도 믿을 것은 못된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또 딴 생각으로 고민한다. 평생을 고생해서 번 돈 투자하는 건데 이것 저것 저울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건축주를 부추기다가 건물 완공도 못보고 망하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의 몇배라던가? 그래 놓고도 찬양받는 건축사는 양심도 없는 철면피라고 말해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 시내 모 빌딩은 짓는 도중 주인이 세번이나 바뀌었다. 고의는 아니였겠지만 건축사가 제시하는 공사비보다 계속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자들이 차례로 걸려든 것이란다. 설계비 두세번 지불한다고 해서 망하는 건축주야 없겠지만, 건축사 사무소는 많아지고 일거리는 줄어들다는 데 적어도 수십년을 쓸 집 짓는데 설계비 두세번 내는 것, 어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복덕방은 집 하나를 주인이 바뀔 때마다 땅값까지를 포함한 값의 몇%를 그것도 팔고 사는 양측으로부터 받는데 두세번 설계하는게 뭐 어렵겠는가?

대부분의 건축설계는 특정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전 지식없이 시행한다. 입찰이란 과정을 거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그로부터 최초의 불평을 듣는다. 자기들의 경험, 보유장비, 선호하는 공법, 재료 등으로 바꿨으면 하는 주문이다. 물론 "설계도면대로 하면 되지 무슨 잔소리냐?"라는 옛날식 억박지름이 통할 때도 있으나, 그것도 한 두번 이상은 할 것이 못된다.

냥시에 미친 사람, 새벽에 일어나도 피곤을 모른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공법으로 설계변경해 주면, 아주 싼 값에도 지어 준다.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푼 안되는 설계비 받고 법정감리비만으로 도장 찍으라고 건축주와 실랑이 하는 판에 설계변경까지 해 주려면 성가시고 본전생각 나는건 당연하다. 따라서 그 변경이 특정 시공업자가

“

성공한 건축사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다분히 건축주를 설득하는 마력이 있다. 작품을 소개하는 설명내용이 실제 작품의 질보다 앞섰을 때 건축주가 느끼는 배신감을 음미해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집 지어본 사람 중에는 건축사의 말을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분도 있다. 음치가 목청 돋구어 노래하듯, 색맹이 유화를 그리듯 엄병대지 말고 근거있는, 그래서 진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돈 가진 자를 설득해 보자.

”

시공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 설계비 지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시공업자가 代案을 들고 나올 때 건축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0억짜리 공사를 80억에 짓는 방법이 있다는 데 안된다고 우길 필요가 무엇인가? 물론 건축사의 계획상 시도했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변경하는 것이라야 하겠지만, 때로는 얼마간 양보해도 안될 것은 없을 것이다.

자기가 뭐 천리안을 가졌다고, 무슨 100점짜리 예술가라고, 한번 그어 놓은 선이 수정되면 안될만큼 완벽할까?

Elevation이 어떻게, 평면의 축이 요것이라고 설정해 놓고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고집센 예술가 때문에 병드는 사람들도 이제는 말 좀 해 보라고 부추기고 싶다.

건축주나 사용자는 도면을 읽을 줄 모른다고 보아야 옳다.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종이에 그린 것을, 그것도 1/100, 1/50축척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건축사의 공간 개념을 이해할 것인가? 그저 그려려니 하고 돈 주고 계약서에 도장찍은 죄로 꿈쩍없이, 마지못해, 마음에도 없는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성공한 건축사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다분히 건축주를 설득하는 마력이 있다. 작품을 소개하는 설명내용이 실제 작품의 질보다 앞섰을 때 건축주가 느끼는 배신감을 음미해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집 지어본 사람 중에는 건축사의 말을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분도 있다. 음치가 목청 돋구어 노래하듯, 색맹이 유화를 그리듯 엄병대지 말고 근거있는, 그래서 진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돈 가진 자를 설득해 보자.

하나의 대지에는 동시에 하나의 건물 밖에 지을 수 없다. 남이 한번 설계한 도면, 신성불가침이고, 기득권을 인정해야 하며, 건축사의 체면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구실로, 조금만 손질하면 뻥히 노다지가 떨어지는데도 못본 체, 모르는 체 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긴다.

너는 왜 사전에 그런걸 모르고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했느냐? 질책하는 건축주가 두려워 쉬쉬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건축사도 있는 듯하다.

윤리니 도덕이니 들먹이며 부당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보았다. 무슨 천생연분이라고, 결혼식 올린 부부라고, 자기만 독점해야 하는 건축주인가?

관청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강제적으로 심사한 후 고치라는 명령을 받으면 군말없이 응하면서, 거기서는 윤리, 도덕 얘기를 꺼내 보지도 못하면서, 건축주가 소문 듣고 알아서 지적한 사항을 왜 목살해야 하는가?

내가 쓴 글을 내가 보아도 어떤 것은 가지런하게 예쁘고, 다른 것은 비뚤어져서 못생겼는데, “완벽”이란 게 어떻게 가능할까?

불과 2년전 온갖 자랑을 다 늘어 놓아 최고의 제품이라고 선전하더니, 이제 그것을 더 개선해서 더 싼 값에 내놓은 자동차 한두번 속아보았나?

우리고 마음을 열어 내 것도, 남의 것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U.R.로 몰려들 외국 기업에게 일감 빼앗기지 않을 실력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형님 아우 체면보다 못먹은 떡, 코쟁이가 짹짜게 물어가면 그 억울하고 허전한 마음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이제 잔소리의 마감으로 긴급제안 제 3호를 정리해본다. 나의 설계, 수정할 것, 개선할 점 있으면 마음 놓고 고치도록 개방하자. 물론 나의 직업이 “구조”이니 “구조”에 국한된 얘기다.

건축계획 개념과 작품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공하기 쉬우며, 안전하고 값싼 공법 채택을 방해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물론 조건이 있다.

먼저 설계한 설계비는 완불하고, 새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을 개선안으로 절약하는 금액에서 지출하고도 만족할만한 절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착화하면 앞으로는 같은 Project를 놓고 여러개의 다른 안을 설계하는 기회(기본계획 현상설계 범위를 넘은)도 마련될 것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내가 관여했던 Project를 제3자가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물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변경한 당사자가 지는 조건이다.